

도쿄도에 대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의 인정을 촉구하는 성명문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 귀하

신문보도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관동 대지진 이후 살해된 조선인 희생자 위령식에 2017년 이후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 여부에 관해서 ‘역사가가 연구해서 밝혀야 할 일’이라며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일제식민지 시기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던 조선인의 기록을 토대로 제작한 영상 작품을 도쿄도 시설에서 상영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관동 대지진 후, 무고한 조선인이 상당수 살해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역사 연구자의 설명 장면이 있습니다. 기획 진행 중, 도쿄도 총무국 인권부 직원이 이 부분을 문제삼아 상영에 우려를 표명하는 메일을 보내왔으며, 여기에는 고이케 도지사의 앞선 인터뷰 내용과 같은 태도가 언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고이케 도지사가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의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점이 이러한 검열과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믿었던 일본인에 의해 다수의 조선인이 살해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생존자의 증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정설로 여겨지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무교육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도쿄도의 대응은 조선인 학살이 없었다는 인식과 조선인들도 살해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억측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조선인 학살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조선인·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또한, 표현활동은 그것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자유로워야 할 예술작품 내용을 문제 삼아 공공기관이 공개를 중단시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확정되고 그리고 동시에 차별과 편견 문제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도쿄도 직원이 문제 삼은 것을 볼 때 도쿄도 시책에서 인권 존중이 경시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우리는 도쿄도가 관동 대지진 직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것과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 작품의 상영을 허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회장 이지치 노리코